

상처 많은 번데기

권유민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놀라고 무서워 집콕! 하고 있을 때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봄은 꽃과 나비 장군을 앞세워, 가을은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 예쁜 단
풍을 앞세워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와 응원의 선물을 주고 갔
다.

“유민아~상처 많은 번데기가 살이 터져 허물을 벗고, 벗고, 또 벗어 더
예쁜 나비가 되어 드넓은 세상을 날 수 있게 되는 거란다.”

계절마다 바뀌는 꽃을 보며 아기같이 행복해 하는 우리 할머니께서는
해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언니랑 싸워서 화가 났을 때, 공부하기 싫어서 신경질이 가득 찼
을 때,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 있을 때 조용하게 다가와 할머니는 ‘상처
받은 번데기’ 이야기를 하시며 늘 나를 달래 주신다.

그때부터 난 꽃밭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이야기 해
주신 ‘번데기’를 떠올린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 다
니는 아름다운 나비는 상처 많은 번데기의 과정을 묵묵하게 잘 견디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을 빛내주는 대표 장군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처 많은 번데기는 절대 초라한게 아니다. 게다가 상처 많은 번데기는
외롭지도 않다. 조금만 더 견디어 허물을 벗으면 날개를 활짝 펴고 노



래하며 춤추는 예쁜 나비가 되어 행복을 전해주는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모두 멈춰 버렸다.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번데기처럼.....

코로나19의 꼼짝마! 주문으로 인해 학교도 매일 못가고, 교회도 못가고, 학원도 자유롭게 못가고, 생일날 좋아하는 뷔페에 가서 외식도 못하고, 친구랑 노래방 가서 유행하는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도 못타고, 가족이랑 추억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하지만 출구없는 미로는 없는 법이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CHANGE에서 G를 C로 바꾼다면 변화를 찬스, 즉 CHANCE 기회로 만들어 더 감사하고 행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예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을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상처 많은 번데기~~~~

하지만 오늘도 허물을 벗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나비가 되어~~분명 예쁜 날개로 예쁜 세상을 날아 오를 것이다.

“우리 모두 예쁜 나비가 되어 만나요~~”